

# 동경 국제 도서전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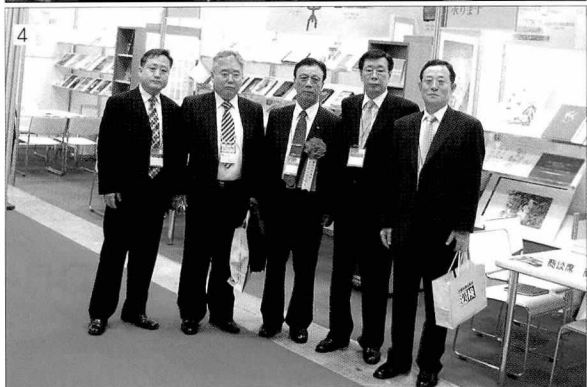
## 한국인쇄 일본에 꽃피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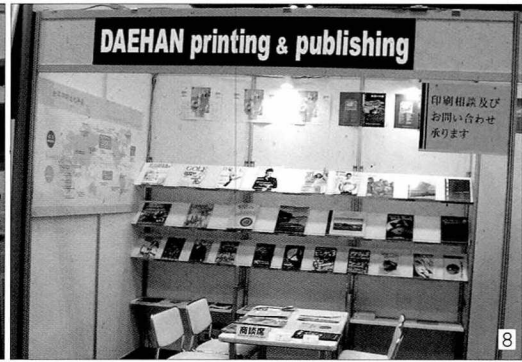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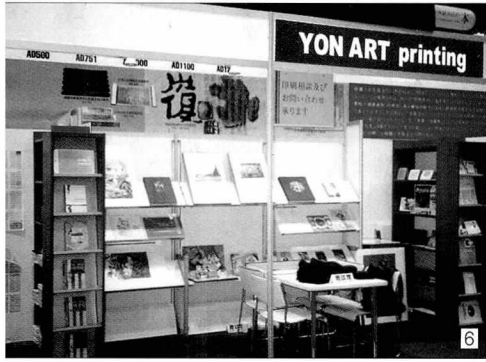


2

지난 7월7일부터 10일까지 동경 빅사이트전시장에서 개최된 제12회 '동경국제도서전2005'에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가 참가, 한국의 인쇄역사 바로 알리기는 물론 현재의 한국 인쇄문화를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사상 최대의 규모로 개최된 '동경국제도서전2005'는 25개국에서 650여개 사가 참여했으며 관람객도 5만 천명에 달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1. 홍우동 회장(오른쪽 두번째) 등 내빈들이 개막테이프를 컷팅하고 있다.
2. 김직승 인쇄연합회 전회장이 한국인쇄관을 방문, 김남수사장과 기념촬영
3. 홍우동회장이 일본출판계 대표에게 한국의 인쇄문화를 설명하고 있다.
4. 도서전을 참관하기 위해 방한한 인협임원진이 일본 출판계 대표와 기념촬영(왼쪽부터 김남수 이사, 일본 출판계 대표, 홍우동 회장, 민창준 부회장, 이규용 이사)
5. 일본출판계 대표가 홍우동회장의 안내로 '직지'를 시연한 후 기념촬영.





6. 연미술 부스 7. 청아문화사 부스 8. 대한교과서 부스 9. 바이어들과 상담하는 모습 10. 홍일문화가 전시한 캘린더

본 전시회는 관련 전시회인 '디지털 퍼블리싱페어', '학습서·교육 소프트웨어 페어', '인문·사회과학서페어', '자연과학서페어', '아동서페어', '편집제작프로덕션페어' 등 7개 전문전시장으로 나뉘 구성됐으며, 특설 코너로 어학학습코너, 서점용 점포관리시스템코너, 취지·실용·여행코너 등도 마련됐다. 특히 디지털 퍼블리싱페어와 학습서·교육 소프트웨어 페어 등은 출판의 최신 기술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이번 전시회와 함께 병행 개최된 이벤트에는 작가·저명인들의 사인회 및 토크쇼, 참가자들의 무료 세미나, 세계 도서 세일코너, 제39회 제본장정 콩쿠르전, 활자문화추진코너, 잡지에독월간부스 등도 마련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와함께 아시아 최대의 문구전인 '국제 문구·종이제품전2005'가 7일부터 9일까지 병행 개최돼 관련 전시회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다.

#### 인협, 한국인쇄관 및 개별업체관 운영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는 한국의 인쇄 역사를 세계 각국에 홍보하기 위해 매년 도서전시회 등에 문화관광부 후원으로 참가해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 등을 중심으로 한국의 인쇄 문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번 '동경국제

도서전2005' 전시회에는 한국인쇄종합관 및 개별업체관으로 구분해 종합관에서는 우리의 인쇄 문화를 알리고 개별업체관에서는 각사의 대표 인쇄물 전시 및 수출 상담을 중심으로 운영돼 많은 상담실적을 올렸다. 우선 한국의 인쇄 문화와 인쇄 역사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한국인쇄종합관에는 직지 영인본, 다라니경 목판 및 복제물과 직지 금속활자 조형물 등이 전시됐으며, 세계인쇄문화연표와 직지심체요절, 무구정광대다라니경 관련 패널 등도 일본어로 번역해 전시됐다. 그리고 직지 금속활판 및 훈민정음 목판을 이용해 고인쇄 체험을 함으로써 한국의 우수한 인쇄 문화를 알리는데 주력했다. 이밖에도 각종 한국의 인쇄 문화 홍보물과 20여개사의 카탈로그도 전시해 한국의 인쇄 기술을 소개했다.

개별업체관에는 대한교과서, 연미술, 청아문화사 등을 비롯해 홍일문화인쇄의 캘린더가 전시됐다.

대한교과서는 책자인쇄물, 연미술은 미술품 복제물과 고급 인쇄물 및 고급 캘린더 등을 전시했으며, 청아문화사는 성경·사전류 등의 박엽지 인쇄물과 각종 상업인쇄물들을 전시해 관람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실제로 한국의 인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담 건수도 늘어 향후 일본에 대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인협 홍우동 회장 개막 커팅식 참석

일본에 한국의 우수한 인쇄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방일한 인협 홍우동 회장은 7월 7일 '동경국제도서전2005' 개막 테이프커팅식에 초대돼 한국 대표로서 커팅을 했다.

지난 2003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본 전시회에 참가한 인협은 일본인들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참가자 및 관람객들에게 한국의 인쇄 문화 및 역사를 바로 알리는 한편 한국의 인쇄 기술을 소개한 것을 인정받아 인협 홍우동 회장이 인쇄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도서전에 초대를 받았다. 단순한 커팅식 참가자가 아닌 한국의 인쇄 문화를 홍보하는 대사로서, 그리고 한국의 인쇄 문화가 인정받은 초대라 할 수 있다.

이번 '동경국제도서전2005'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인협은 올해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도 참가해 한국의 인쇄 문화와 역사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동경 국제도서전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도서전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한편 인협은 해외 전시회 참가와 함께 국내에서 개최되는 인쇄 관련 전시회에도 참가해 내국인들을 상대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인쇄산업전시회와 특수인쇄산업전시회를 공동 주최함으로써 인쇄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윤재호 부장)